

과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느님의 은총이 나타났습니다.

티도 2,11

성자의 육화 안에 드러난 성부의 무한한
자비를 관상하고 선포하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자비의 특별 희년에 단순한 마음과
가난으로 성탄을 맞이합시다.

새해에도 매일 생명의 무상의 선물을
전하는 기쁨과 희망을 여는 기쁨이 우리
안에 스며들도록 우리 자신을 개방합시다!

2015년 성탄을 축하하고
평온한 2016년이 되길 바라며!

Sr. Marta Finotelli
선한목자예수 수녀회 총장 수녀와